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2期(2026.08.07) WWW.MINGHUI.ORG

한글판 1066호 minghui.or.kr



▲ 해양 축제 토치라이트 퍼레이드(Seafair Torchlight Parade)에 참가해 칭찬을 받은 미국 시애틀 파룬궁수련자들

주요내용

【해 외】 키이우 시민들,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 촉구

【중 국】 인터넷의 높은 벽을 오른 전후: 한 중국의 작은 마을 교사의 실제 경험

【수 련】 아내가 대법을 수련한 후 나는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평 론】 응보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떠한가?

【문 화】 광자의의 고상한 품성 “충신은 총애에 기대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목 차〉

■ 해외종합

프랑스 관광객 “이는 수호할 가치가 있는 항쟁입니다”	3
키이우 시민들,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 촉구	6
NBA 스타 “인권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 11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6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업데이트 및 발정념 종소리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공식 출시	24

■ 중국소식

인터넷의 높은 벽을 오른 전후: 한 중국의 작은 마을 교사의 실제 경험 26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30

■ 수련교류

주택 분쟁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지다	33
아내가 대법을 수련한 후 나는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	37
착실히 수련하며 안으로 찾는 오묘함을 깨닫다	44
험악한 환경 속에서 빛난 선량한 본성	47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자신을 착실히 수련한 약간의 깨달음	51
가족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	55

■ 시사평론

응보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떠한가?	62
-----------------------------------	----

■ 문화예술

곽자의의 고상한 품성 “충신은 총애에 기대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69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관광객 “이는 수호할 가치가 있는 항쟁입니다”

[명혜망](파리 지국) 2026년 8월 1일, 프랑스 서부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낭트 로얄 광장에서 파룬궁 정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로얄 광장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를 띠었고, 휴가를 마치고 막 돌아온 사람들과 휴가를 보내러 온 관광객들이 많았다. 낭트는 프랑스 서부 루아르강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풍부한 건축 및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예술과 역사의 도시로 불린다.

정보의 날 행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전시판과 파룬궁수련자의 소개를 통해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됐다. 특히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27년 동안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광객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관광객 파비앙은 청원서에 서명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호할 가치가 있는 항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할 아름다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에 서명한 후 파룬궁수련자들이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격려했다.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엄지를 치켜세우며 수련자들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했다.

진상을 알고 파룬궁에 다가가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80세 여성은 중국 내 파룬궁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중공 정권의 지속적인 박해에 유감을 표하며 G7+7 청원서에 서명했고 파룬궁수련자들의 행동에 감사를 전했다.

파룬궁 부스를 찾은 30대 젊은 부부는 파룬궁수련자들이 고문 받는 전시판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박해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 진상을 깊이 이해한 후 그들은 파룬궁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이어가기를 격려했다.

70대 장마르크와 그의 중국계 아내는 부스로 곧장 다가와 청원서에 서명했다. 프랑스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 아내는 수련자에게 10년 전에 이미 중공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박해 이전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박해 속에서도 수련을 견지했으나 어느 날 실종됐고, 지금 살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 중국계 여성은 자신과 같은 또래의 많은 중국인이 정치 운동, 특히 문화대혁명을 겪었기에 중공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주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중공의 박해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중공은 독재 정권이고 중국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후 그들은 대법(大法)과 연공장 정보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진상 자료를 챙겼다.

낭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의 한 남성은 부스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는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박해 진상을 충분히 알게 된 후 파룬궁 공법을 배우러 오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서명과 박해 종식 촉구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가와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중 청년들의 비율이 평소보다 높았고 많은 이가 학생이었다.

18세 청년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방금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는 즉시 청원서에 서명하고 파룬궁 공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물었다.

오늘날에도 이토록 심각한 인권 박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 명의 젊은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곧바로 청원서에 서명하며 이것이 끔찍한 만행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박해받는 중국인들에게 가슴 아파했다.

19세 청년 세 명은 부스로 바로 다가와 청원서에 서명했다. 파룬궁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이들은 방금 알게 된 박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두 젊은 여성이 온라인 서명 링크가 있는 전단지를 한 장 더 가져가기 위해 뛰어왔다. 자신들이 알게 된 진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또한 박해, 강제 장기적출, 수련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졌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수련자들에게 열렬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남성이 수련자에게 물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종일 넘치는 에너지를 유지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수련자가 대답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중국에서는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량한 사람들, 즉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수련자는 또한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을 깊이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이런 힘과 희망이 있는 이유라고 말하며 하루빨리 이 박해가 종식되기를 바랐다.

키이우 시민들,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 촉구

[명혜망](키이우 통신원) 중국공산당(중공)이 중국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박해한 지 27년이 되는 해를 맞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애도와 장엄함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은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룬따파 공법을 시연했다. 행사 기간 수련자들은 두 명씩 조를 이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중국에서 중공의 박해로 목숨을 잃은 파룬궁수련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일부 수련자들은 행인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만행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파룬따파와 중국에서 겪고 있는 중공의 박해를 소개하는 녹음이 계속해서 방송됐다.

20여 년 동안 키이우 파룬궁수련자들은 매년 ‘7·20’ 박해 반대 행사를 개최해 왔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파룬궁수련자들은 보통 키이우 주재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대규모 박해 반대 행사를 열었다. 현재는 키이우 주재 중국대사관이 폐쇄돼 시내 중심가 주요 거리인 시청 건물 맞은편 구역으로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많은 수련자들은 이번 행사의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수많은 행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고 말했다. 수련자들로부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 상황을 들은 후, 많은 사람이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키이우에서 행사를 열고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파룬궁수련자들

중공의 박해를 받는 수련자들에게 동정을 표한 젊은이들

특히 수련자들의 행사에 감동한 두 젊은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수련자들이 파룬따파 정보가 적힌 플라스틱 연꽃을 선물하자, 그녀들은 즉시 연꽃을 가방에 매달며 항상 지니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10대 소년 무리도 행사의 장엄한 분위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과 같은 선량한 무리를 박해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사악하다며, 수련자들이 대중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는 학령기 청소년 몇 무리가 오랫동안 수련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유물론자를 감동하게 한 파룬따파의 원칙

한 젊은 남성이 나이 든 수련자로부터 파룬따파와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에 그는 이 정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만약 자신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을 믿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수련자는 믿음의 여부는 지식을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이 젊은이를 감동하게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이 원칙들을 믿지만, 단지 교육 시스템이 자신에게 다른 관점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이 수련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는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사 참가 이유를 밝힌 수련자들

카롤리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20년이 넘었다. 매년 그녀는 다른 수련자들과 함께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가부좌를 틀며 박해에 반대해 왔다.

그녀는 자신이 수련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며, 자신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불공정한 탄압에 반대하길 희망했다.

카롤리나가 말했다. “저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원서에 서명하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비극을 알리며, 무관심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심과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중국에 있는 자유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겐나디는 군인 출신이다. 그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자주 키이우의 한 연공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중공의 박해 진상을 소개하는 전단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겐나디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공산주의 정권의 사악함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보통 이 박해의 원인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나디가 말했다. “중공 전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을 질투해 이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1999년 박해가 시작될 당시 중공 당원은 약 7천만 명이었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1억 명이 넘었고 그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옥사나는 두 딸을 데리고 행사에 참가했는데, 그녀들도 모두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다. 옥사나 본인도 수련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중공의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행사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

그녀는 키이우 수련자들이 전쟁 기간이나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행사를 고집스럽게 개최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사나가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로서 우리는 단지 건강과 선량함을 유지하길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에서 파룬따파 정공(靜功) 공법을 연마하고 있는 옥사나와 큰딸 데니스도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사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많으며,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300년에 달하는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데니스가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전체 문명, 전체 제국의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일깨움과 평화적인 항의를 통해 우리는 정신의 힘과 신앙의 힘이 사악함과 증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NBA 스타 “인권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

[명혜망](리징페이 기자) “중국공산당(중공)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돈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계약이나 홍보대사직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미국 NBA 전 선수 에네스 칸터 프리덤의 발언이다.



2026년 7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는 미국 NBA 전 선수 에네스 칸터 프리덤

그렇다면 칸터는 왜 중국에서 중공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을까?

2026년 7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집회에서 칸터는 단상에 서서 자신이 파룬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모인 2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연설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진심을 다해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의 도움이 내 마음을 움직여”

칸터는 약 3년 전 파룬궁 티셔츠를 입은 한 어린 소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했다고 회상했다.

칸터가 말했다. “그 소녀는 당시 키가 3피트(약 0.9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저에게 ‘제 가족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매우 당황해서 ‘무슨 말이니?’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제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고 가족이 겪은 모든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칸터는 그날부터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의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줄곧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파룬궁수련자 및 박해받는 그들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이 겪은 일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칸터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어린 소녀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덕을 지키는 것이 NBA보다 더 중요”

1992년 5월 20일 취리히에서 태어난 이 스위스 출신의 튀르키예계 프로 농구 선수는 키가 2미터가 넘는다. 미국 NBA 프로 선수 시절 그는 유타 재즈,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뉴욕 닉스,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보스턴 셀틱스 등 5개 NBA 팀에서 활약했다.

칸터는 집회에서 자신이 중국인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받았으며, NBA 측이 그에게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칸터가 말했다. “중공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돈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계약이나 홍보대사직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당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농구보다 더 중요하며 NBA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농구를 하고 있을 때, 세계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회 현장의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말했다. “NBA 선수로서 저는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잃었다는 것을 알

며, 수백 수천만 달러를 잃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BA 선수가 되기 전,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저는 무엇보다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민족 출신이든 불의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마땅히 나서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칸터가 말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일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박해와 이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게 돼 큰 영광이며,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제가 NBA에 이름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저라는 동맹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진선인’에 귀 기울이고 따르기를 기대

이날 연설에서 칸터는 워싱턴 DC라는 이 도시에 많은 의원과 입법자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구두 규탄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중공을 겨냥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만행을 규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수만, 심지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가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입법자들이 중공과 같은 사악한 정권에 맞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과 세계 곳곳에 아직도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앞으로 자신이 더 많은 운동선수, 배우, 예술가, 사회 운동가들을 이끌고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것은 비정치적인 운동이자 인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이 우파이든 좌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곳에 와서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칸터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만약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가 파룬따파의 그 순수한 이념, 즉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따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량함에 관한 것이고 진실함에 관한 것이며 바른길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청할 가치가 있고 그들의 용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다”

행사가 끝난 후, 칸터는 소셜 미디어에 현장 영상을 게시해 다양한 연령대의 파룬궁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는 게시물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27년!

27년의 박해.

27년의 고문.

27년의 파괴된 가정.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겨냥해 잔혹한 탄압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단지 ‘진선인’이라는 가치관을 실천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 고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청할 가치가 있고, 그들의 용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월 25일 저녁, 미국 시애틀 해양 축제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Seafair Torchlight Parade)가 새로 완공된 시내 해안가 구역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퍼레이드 중 해양 축제의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일한 거대 배 모형 꽃차로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명나라 시대 옛 방식의 법선(法船)이 후원사 꽃차 뒤를 이어 첫 번째로 출발했다. 2005년 첫선을 보인 이후, 대법선은 20여 년 연속 퍼레이드에 참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10여 개의 큰 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해양 축제 공식 홍보 영상에 선정됐다. 파룬따파 대열이 퍼레이드 본부석을 지날 때, TV 앵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이것은 워싱턴주 파룬따파 학회가 선보인 ‘천우법선(天宇宙法船)’입니다. 파룬따파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가르치는 가부좌 수련 공법입니다. 법선을 장식한 우담바라 꽃은 전설에 따르면 3천 년에 한 번 핀다고 합니다. 우담바라가 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떠올려야 할 때라고 전해지며, 이 꽃이 피는 것은 인류가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일깨우기 위

함입니다.” “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뻐합니다!” 앵커는 이어서 소개했다. “꽃차 뒤로 등장하는 것은 전통 요고팀입니다. 예로부터 요고팀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상서로움을 맞이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는데, 마치 천지를 위해 환경을 정화하는 팀과 같습니다.” 서애틀 시장 윌슨(Katie Wilson)이 요고팀 수련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26일, 미국 LA 파룬궁수련자들은 관광지 샌타모니카(Santa Monica) 부두에서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에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상대로 27년간 지속해 온 잔혹한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이날 오전 10시,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아래 단체 연공을 하고 가부좌를 했다. 오가는 각국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 전시판을 읽거나 파룬궁 공법을 따라 배우기도 했으며, 박해 종식 서명판에 서명하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관광객은 선량한 파룬궁 단체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극악무도하며, 전 세계가 나서서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일, 북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지의 연례 예술제 행사에 참가해 공법 시연과 대면 교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자유와 생명권은 수호할 가치가 있다며, 박해 종식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캐나다 몬트리올 파룬궁수련자들은 몬트리올 차이나타운과 다르므 광장(Place d'Armes)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행사를 열었다. 연공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상 게시판 앞에는 종종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글을 읽었으며 촛불

추모 현장은 장엄하고 숙연했다. ‘진선인’ 가치관은 다양한 민족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인, 현지 주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지지를 표명하며 중공의 박해를 규탄했고, 또 어떤 이들은 파룬따파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공법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거리, 공원, 라디오 방송국 및 종교 간 포럼에 가서 연공 시연, 언론 인터뷰 및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에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공의 27년째 이어지는 박해를 증식할 것을 호소했다. 행사 중 어떤 이는 현장에서 공법을 배웠고 어떤 이는 연공장에 가겠다고 밝혔으며, 한 여성은 “이것은 마치 하늘이 제게 주신 해답 같습니다”라며 감동적으로 말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안 뒤 중공의 박해를 규탄하며,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를 알고 이 박해를 함께 저지하기를 희망했다. 타마울리파스주 주도 시우다드 빅토리아에서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지혜의 다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결집하는 대화(Bridges of Wisdom: Dialogue on the Universal Values That Unite Humanity)’라는 주제의 문화 간 포럼에 초청돼, 참석자들에게 파룬따파와 ‘진선인’ 이념을 소개하고 중공이 파룬궁을 27년째 박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푸에블라 주의 SICOM 라디오 방송국의 은퇴한 프로그램 제작자 헤르만 페랄타 아르마스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인터뷰에 초청했고, 3주 연속으로 방송 시간을 내어 청취자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7월 20일과 26일, 멕시코시티의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멕시코 주재 중국대사관 밖과 차이나타운 인근 역사 지구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7월 11일, 18일, 25일, 파룬궁수련자들은 3주 연속 토요일 프랑스 파리 샤토레 지역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었다. 견디기 힘든 폭염과 띄약별에도 수련자들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했다. 브장송에서 온 젊은 로라 뒤콩제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중공이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강제로 장기적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고 격분했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생체 장기적출)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국가원수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걸까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피해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은폐된 진상을 밝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사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격려했다. “어찌 됐든 여러분은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상황이 진전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파룬궁 박해 반대 27주년을 맞아, 7월 19일~7월 20일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뮌헨 등지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평화 시위를 열고, 공법을 시연하며 박해를 폭로했다. 베를린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이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으며, 함부르크 경찰은 파룬궁이 오랫동안 평화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최근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의 명단이 낭독됐고, 뮌헨 중국영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적인 항의 활동은 현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여기에 독일의 각급 정계 인사 13명이 서한을 보내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면서, 독일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 박해 반대 활동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당 원내교섭단체 부대표 귄터 크링스 교수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공이 중국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지 이미 27년에 달하며, 이는 세계 많은 곳에서 신앙과 개인의 신앙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저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그 어떤 자유 민주 법치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초석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위협당하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무관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념 때문에 박해와 위협을 받거나 자유를 박탈당할 때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처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억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카르스텐 쾨르버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전하는 중공의 박해, 자의적 구금, 고문,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관한 보고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민·기사당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체계적인 박해와 중국 내 다른 종교 및 소수 민

죽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며 인권은 보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기본 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 및 유럽 차원에서의 우리의 정치적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독일 헤센주 자민당 의원이자 자민당 의회 당무 의장 올리버 슈티어뵈크는 지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인성을 말살하는 중공 정권이 인류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고 생계가 박탈당하며 심지어 고문당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또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여러분과 굳건히 같은 편에 서서, 자유와 인류의 존엄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저항은 단지 한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보편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어디서든 전제 정권의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7월 19일,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집회를 열고,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추모하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인권수호단체(GHRD)는 중국 파룬궁수련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한을 보냈다. “20년 넘게 독립 전문가, 인권 단체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은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자의적 구금, 고문, 납치, 그리고 종교 신앙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한 등의 혐의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혐의 중 하나는 양심수(파룬궁수련자 포함)의 장기적출입니다. 만약 이

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 인권법과 의료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받은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며,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함을 재 천명합니다. 지속적인 정의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추궁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네덜란드 국경 없는 인권의 디렉터 한스 누트도 지지 서한을 보내왔다. “27년 동안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은 평화로운 신앙 때문에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자의적 구금, 고문, 장기적 출에 대한 보도들은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탄압 운동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만행을 계속 규탄해야 하며, 결코 보고도 못 본 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하며 어떠한 탄압 행위도 규탄합니다.”

7월 5일과 12일 루마니아 해변 휴양지 마마이아, 7월 11일과 18일 산악 도시 브라쇼브, 7월 18일과 20일 부쿠레슈티에서 많은 시민이 진상 자료를 받았고 이 수련법에 대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또한 주요 7개국(G7) 및 7개 비회원국(G7+7)에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후르무자케처럼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이 공화국 거리에 진상 부스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일을 영영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경제학자 비앙카 후르무자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진상을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세계적인 협력과 이러한 박해를 폭로하려는 노력은 거대한 희망의 빛입니다. 굳게 단결된 여러분의 목소리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비극을 둘러싼 침묵의 벽을 점차 허물고 있습니다.”

7월 18일(토요일) 저녁 7시 반, 튀르키예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이스탄불 중국영사관 맞은편 해변에 모여 튀르키예어, 영어, 중국어 현수막을 펼치고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수련자들은 또 촛불 추모 행사를 열고 중공의 박해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를 기렸다. 많은 사람이 중공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수련자들이 박해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재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한 러시아 부부가 수련자들에게 다가와 박해 진상을 자세히 알아봤다. 그들은 이렇게 심각한 만행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박해에 슬퍼했다. 그들은 청원서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 전단지 받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박해를 알리고 싶어 했다.

8월 1일 이른 아침, 유유히 연공 음악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공원에 울려 퍼지자 산책하던 주민들이 잇달아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이 평화로운 연공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룬궁수련자들은 이곳에서 단체 연공을 하고 대중에게 파룬따파와 중공이 27년간 지속해 온 박해를 소개했다. 여러 시민이 관련 상황을 알아본 후 지지를 표명하며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법률 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다니엘(Danielle)은 말했다. “남아공 사회에

는 정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양심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저녁, 호주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에서 퀸즐랜드 다문화 등불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관중들의 사랑과 환영을 받았다. 부노와 유코 부부는 7개월 된 작은딸과 7살 된 큰딸을 데리고 처음으로 등불 퍼레이드 현장을 찾았다. 유코 가족은 파룬궁수련자들의 퍼레이드 대열에 매료돼 현수막과 등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코는 말했다. “여러분 대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통 의상이 펄럭이고 등불도 매우 독특해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부노가 말했다. “이 세상은 ‘진선인’이 있어야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업데이트 및 발정념 종소리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공식 출시

[명혜망](해외 단신) 명혜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Android) 버전이 2026년 7월 28일에 3.0.0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새 버전은 더 많은 최신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지원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의 많은 개선점을 포함한다.

아울러 명혜망 발정념 종소리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소프트웨어 영문명: FZN Gong)도 2026년 7월 19일에 공식 출시됐으니 많은 다운로드와 사용을 바란다.

명혜망 앱 3.0.0(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 내용

1.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의 많은 개선점을 포함했다.
2. 더 많은 최신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지원한다.
3. [명혜 정기간행물(明慧期刊)]을 추가했다.
4. [핫이슈(熱點專題)]를 추가했다.
5. 알림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매일 최신 기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명혜망 발정념 종소리 앱(FZN Gong) 1.0.0 소개

대법제자 매일 정시 전 세계 발정념 종소리 앱이다. 이 앱은 매일 베이징 시간(GMT+ 8) 5:55, 11:55, 17:55 및 23:55에 15분 길이의 ‘종소리’ 음악을 재생한다.(역주: 해외는 해당 지역에 따라 시간이 조정됨) 이 음악은 한 번의 ‘종’ 소리로 시작되며, 이 종소리는 5분 간격으로 반복돼 총 4번 울린다. 매번 종소리 사이는 무음 시간대다.

명혜망 모바일 버전 다운로드 방법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명혜(明慧, Minghui)’를 검색하면 명혜망에서 배포한 명혜망 앱과 명혜망 발정념 종소리 앱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고: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이 제품은 현재 해외 수련자에게만 사용을 권장하며 중국 수련자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높은 벽을 오른 전후: 한 중국의 작은 마을 교사의 실제 경험

글/ 초성

[명혜지창] 위챗 모멘트가 다시 차단된 후, W 선생님은 제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화벽이 세워지기 전의 인터넷부터 오늘날 만연한 인터넷 검열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그가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바다의 깨달음

저는 중국 작은 마을의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1998년, 학교에서 컴퓨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교사가 컴퓨터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컴퓨터 강좌를 맡겼습니다.

컴퓨터가 막 등장하던 시기였기에 당국은 아직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 저에게 인터넷은 끝없이 펼쳐진 정보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외 언론 웹사이트를 구독하고 100여 개국 출신의 네티즌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시야가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공산당은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고, 중국 민중은 근거리 통신망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경험 덕분에 외부 세계와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수사의 시작

당시 저는 대만 출신의 온라인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에 오면 제 고향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제 고향에 와서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만으로 돌아간 후, 중국 여행 경험과 저와의 만남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측에서 성(省) 공안국 경찰이 저를 찾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교장실에 갔을 때, 경찰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마침내 그 대만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만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사회 체계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제 사진을 악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제가 그들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물을 되찾아준 여자

약 2년 후, 제 여자 동료가 지역 서점에서 신분증, 은행카드, 현금이 들어 있는 작은 여성용 핸드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료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물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가방을 길에서 주웠고, 발신자 번호에서 그녀의 전화번호

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료는 급히 서점으로 돌아가 수수한 옷차림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동료가 가방 주인임을 확인한 후, 가방을 손대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동료는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드리려 했지만, 그 여성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돈이 필요했다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겠죠.”라고 했습니다. 때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였는데, 당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극심하여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여성은 동료를 한쪽으로 데려가 자신은 파룬궁 수련자이며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에 떠도는 파룬궁에 대한 온갖 루머는 중국공산당이 퍼뜨린 중상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특히 “중국공산당이 ‘텐안먼 분신자살’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CCTV에 방영하고 다른 매체에도 퍼뜨려, 정보가 부족한 대중이 파룬궁을 오해하고 증오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서둘러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료가 돌아와 이 놀라운 만남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파룬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왜 공산당이 파룬궁을 그토록 집중적으로 탄압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돌려준 이 여성은 공산당의 선전에서 묘사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위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매일 방송되는 내용 속에서 일반인이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기사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다

당시에는 인터넷 검열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기에, 저는 동료의 경험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기사로 작성하여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경찰이 제 직장에 찾아와 그 기사를 쓴 목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원칙의 문제라며, 교사로서 반당 반사회적 집단을 미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지도부의 중재로 더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저는 중국공산당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위험인물이 되었습니다.

방화벽을 우회하여 진실을 찾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저는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중국공산당의 맹렬한 비난을 받던 명혜망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공유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친절하고 평화로운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공산당이 그들을 박해하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삼퇴”(중국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 탈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산당에 가입한 적은 없지만, 명혜망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어린 시절 가입했던 소년선봉대와 공청단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만리장성 방화벽 내부의 정보 전달

수년간 저는 방화벽 바깥의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보는 오랫동안 중공의 선전에 노출되어 있던 일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제 위챗 그룹과 모멘트는 중공 사이버 경찰로부터 수없이 경고를 받고 차단당했습니다.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저를 “반당” 변절자로 보지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십여 명 생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중공과 그 산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정 정지나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왜 계속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제 생각에 거짓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이미 불타오르는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일깨워 주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들이 제 말을 믿는지 아닌지, 불난 집에서 나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의 두 여성 파룬궁수련자 가오샤(高俠·56세), 쑹리제(宋麗傑·69세)는 2025년 10월 타이허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 가택수색을 당했고 진저우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가오샤는 부당하게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여전히 진저우시 여자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쑹리제는 부당하게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린성 창춘시 관청구의 73세 파룬궁수련자 한위제(韓玉傑)는

장기간 편진 파출소 경찰의 괴롭힘과 모함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 2025년 7월 10일, 그녀는 다시 경찰에게 납치돼 창춘시 웨이쯔거우 구치소에 감금됐다. 구치소는 줄곧 가족의 면회를 거부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1년 6개월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장시성 난창시 진센현 파룬궁수련자 완타오잉(萬桃英·64세)은 2025년 8월 5일 푸젠성 푸저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푸저우시 창산구公安분국 국보 경찰에게 다른 성(省)에서 납치, 가택수색을 당한 뒤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7월 하순 완타오잉은 푸저우시 민칭현 법원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1년 3개월의 불법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납치된 도화선은 그녀가 푸저우시의 예전 파룬궁수련자 왕용진(王永金)에게 휴대폰 3대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고 위챗(微信) 단톡방에서 그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왕용진은 이미 푸저우시 국보에 납치된 상태였고 휴대폰 3대는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가 완타오잉을 모함하는 이른바 ‘증거’가 됐다. 이에 앞서 그녀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두 차례 불법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녀는 장시성 여자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해 눈이 거의 실명됐고,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쇠의자 고문을 당해 양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

장시성 난창시 파룬궁수련자(여) 추더잉(裘德英·66)과 쉬쥐롄(徐菊蓮·69)은 2026년 7월 14일 시후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이어 7월 17일에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벌금을 갈취당했다. 죄명은 이른바 형법 300조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였다. 추더잉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300위안을 선고받았고, 쉬쥐롄은 징역 1년 11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위

안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녀들에게 벌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추더잉과 쉬쥘렌이 부당한 선고를 받은 것은 2024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당일, 그녀들은 난창시 바이(八一)대로 여성아동보건원 인근에서 ‘진상 서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진상 정보 링크를 전송해, 경찰은 그녀들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했다.

신장 우루무치시 파룬궁수련자 뤼촨메이(羅傳梅)가 2025년 3월 초 신스구 공안에게 ‘심문’을 구실로 속아 납치된 후 부당하게 3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3일, 그녀는 신장 제2감옥(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69세였다. 감옥 측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강제로 화장했으며, 많은 세부 사항이 여전히 은폐돼 있다. 뤼촨메이는 오랫동안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부당하게 구류, 강제노동 및 세 번의 징역형을 겪었다. 그녀가 겪은 일은 신장 지역에서 장기간 은폐된 시스템적인 박해를 폭로하고 있다.

랴오닝성 푸신시 파룬궁수련자 가오위민(高雨氏)은 원래 푸신시 공안국 형사경찰대 경찰이었으며,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4년 중공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선양 제1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고문, 전기 충격, 강제 음식물 주입,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독주사 투여 등의 시달림을 겪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체가 건강했지만, 출옥할 때는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선양 의과대학 제1병원에서 가오위민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한 결과 중독성 대사성 뇌병증으로 진단됐고, 바르비투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수년간 그는 유동식을 주입받아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2026년 7월 19일, 가오위민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향년 59세였다.

주택 분쟁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지다

[명혜지창] 한때 원수였던 사이가 역경을 함께 딛고 절친한 친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당시 저는 왕 씨와 주택 분쟁으로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죠. 그 관계가 평생 그렇게 유지될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특별한 아침,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 건설과 이웃과의 갈등

1990년대 초, 우리 부서 안의 2급 기관 단위가 가족 아파트 옆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지은 것이죠. 그 건물은 높이가 상당했고 기초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전히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 건물 기초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공사로 인해 불편과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마당에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잦았고, 옆집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공사를 막기 위해 제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부서장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와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게 했고, 우리는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모두 저를 미워했고, 심지어 저의 집에까지 소란을 피우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과 맞서 싸우려 했고, 하마터면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옆집 이웃, 특히 5층에 사는 왕 씨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집에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그들

때문에 저는 매일 불편하고 분개했습니다.

광장에서 명상하는 사람들

1996년 9월 어느 이른 아침, 잠이 오지 않아 운동장으로 조깅을 나갔다가 광장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상은 스님들만 하는 건데,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호기심에 그중 한 사람 옆에 서서 명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례합니다만, 어떤 수련을 하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했습니다. “책이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그는 가방에서 ‘전법륜’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책을 펼쳐 ‘논어’의 첫 구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책을 닫고 두 손으로 그에게 건네주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근처 신화서점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신화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그날 밤 ‘전법륜’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룬궁’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했는데, 동작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복통, 재발성 감기, 그리고 부비동염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른 기공 수련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남짓 후, 아내도 나와 함께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공감이 원망을 없애준다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로 내 사고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공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건물 옆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싸우고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살 곳이 없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많은 가족이 빠듯한 월급을 모아 겨우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상처까지 줬다는 사실을 깨닫자,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행동과 표정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선함을 풍기게 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을 거듭한 후, 예전에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을 만나도 적개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자연스러워졌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우연한 만남

한때는 원수처럼 여겼던 오랜 친구 왕 씨는 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심한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앉아 동이 트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은 날마다 고통스러웠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6시 전에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내게 “매일 아침 그렇게 일찍 나가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파룬궁이 좋은 거야?”라고 물었고, 나는 책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귀한 책, ‘전법륜’을 5층으로 가져다주었다.

놀랍게도 그는 이틀 만에 ‘전법륜’을 다 읽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수련용 매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매일 아침 3시 30분 정각에 우리 집 근처 광장으로 와서 함께 수련했습니다. 그는 내게 “아빈(가명), 이상하지 않아? ‘전법륜’을 읽은 그 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까지 깨지 않고 푹 잤어. 기침도 안 했고. 정말 기적이야!”라고 했습니다. 왕 씨의 아내인 똥똥한 형수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또한 ‘전법륜’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책에 몰입하여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매트를 만들어 광장으로 가져가 아침마다 왕 씨와 함께 수련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전법륜’ 단체 법공부에 참석한 후, 우리와 함께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똥똥한 형수는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했던 심장 질환이 호전되고 다른 병들도 나았다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찼지만, 이제는 5층까지 짐을 나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수에서 형제로

우리는 집을 짓는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수련을 통해 이제는 모두 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고, 서로 ‘진선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되짚어 보며 날마다 무엇을 얻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기쁨에 넘쳐 행복에 흠뻑 빠져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가자고 재촉해도 그들은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념을 지키다 박해받던 시절,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우리 집안일을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저는 구치소에 갇혀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설 새 없이 애썼고, 우리 아이는 하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부터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까지, 우리를 이어준 것은 바로 ‘진선인’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룬궁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얻었고, 내면의 선함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왕 씨와 제가 가장 진실한 증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대법을 수련한 후 나는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글/ 랴오닝성 덩위(登宇)

[밍후이왕] 결혼 후 아내는 내 성격을 고치려 했고 늘 나에게 욕을 마구 해댔다. 처음에 나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술을 마신 후 담력이 커져서 우리 두 사람은 늘 주먹질하고 가정 모순이 심했다. 이후에 그녀는 온갖 병으로 온몸이 괴로웠고 희망을 잃었지만, 이후에 파룬따파를 배우자 관용하고 대범해졌으며 성격이 아주 강인해졌다. 나는 그녀의 몸에서 대법이 나타낸 신의 위력을 볼 수 있었다.

화목함과 따사로움이 어둠을 몰아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지 않아서 화를 내기만 하면 청천벽력 같았다. 부모 형제자매들은 모두 내 성격을 알고 나에게 양보했다.

결혼 후 나는 특별히 집을 잘 보살폈고 먹고 쓰는 것에 대해 아주 질서 있게 배치했으며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내가 했다. 집에서 크고 작은 일을 나는 아주 잘 처리했지만, 화를 내기만 하면 아내는 내게 양보하지 않고 기어코 내가 입을 다물 때까지 욕했다. 어떤 때는 화를 참지 못해 물건을 부숴고 그녀는 무엇을 잡기만 하면 나를 향해 던졌다. 처음에 나는 그래도 이성적이었고 자신에게 ‘좋은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피했다.

사회에서 음식접대가 점점 늘어났고 나는 늘 밖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술을 마신 후내 담은 커졌고 집에 돌아와서 주정을 부리며 마음속의 불쾌감을 발산했다. 그러나 아내는 나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가끔 나에게 크게 손을 댔으며 두 사람은 늘 몸싸움을 했다. 그녀는 내 손등을 긁거나 내 어깨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뽑았다. 내가 밖에서 식사하느라 8시 반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식당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해댔고 나를 모욕하고 심지어 주먹질 발길질을 했다. 그리하여 나는 동료와 친구들 앞에서 아주 체면 없게 됐다. 속담에 ‘남자는 눈물을 함부로 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끔 나는 그녀 때문에 화가 나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아내는 나보다 더 좋지 못했다. 온갖 병을 얻었는데 심한 결장염, 척추골막염 등이고 종일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구운 닭 껍질처럼 시커멓다. 약은 한 줌 한 줌 먹어도 소용없었고 온종일 신음했다. 그녀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마음이 불안했으며 화를 내는 빈도가 더 잦아졌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내기만 하면 그녀는 미친 듯이 나와 필사적이었다. 거절하는 말을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녀는 욕을

끝없이 했다. 집안은 어둠이 깔렸었다. 나는 내심 깊은 곳에서 따뜻한 집을 바랐고 나는 정말로 그녀 혹은 내가 자신의 성격을 고치기를 희망했다. 이 모순 많고 상처가 가득한 가정이 나아지길 바랐다. 그러나 화를 내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1996년 아내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우기 시작했고 관용하고 대범해졌으며 일을 함에 있어 늘 상대방을 위해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후부터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또 끊임없이 선의적인 언어와 심오한 도리로 나를 인도했다. “마음이 평온하면 건강에 좋아요. 불같으면 신체를 해칠 수 있어요.” 그녀는 대법을 배운 후 사부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남편을 보살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또 이후에 자신을 개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아내 말을 나는 아예 믿지 않았다. “결혼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당신은 언제 나를 생각해주고 보살펴줬지? 당신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을 고친다면 강산도 움직일 수 있겠네!”

나는 그녀가 단지 다른 방법을 바꿔서 나를 개변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해낼 줄 몰랐다. 한번은 내가 밖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구토했고 침대와 바닥에 모두 토사물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수건으로 내 얼굴 닦아주고 물을 떠서 마시게 했다. 내가 주정을 부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술에 취하면 몸에 해로워요. 주정을 부리면 더 신체를 해칠 수 있어요. 빨리 침대에 올라가 쉬세요.” 나는 침대에 올라가 누웠고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한번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서 TV 리모컨을 찾지 못하자 나는 TV를 부숴버렸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른 방에 갔다. 나는 또 따라가서 문을 부셨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두려웠다. 왜냐하면, 이 TV는 아주 비싼 것이고 아내가 나를 마구 때릴까 봐 두려웠다. 나는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그녀를 보며 벽을 잡고 슬금슬금 걸어가면서 눈치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나의 속셈을 알았는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젯밤에 TV를 부셨으니 빨리 가서 새것 하나 사오세요. 안 그러면 저녁에 뭘 볼 건가요?”

그녀의 언행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앞에 서 있는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됐다. 그녀는 성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구부정한 신체는 날씬하고 반듯하게 변했다. 구운 닭 껍질 같았던 얼굴은 하얀색에 붉은 기가 돌았다. 도끼눈 뿔던 눈은 자상한 얼굴로 변했다. 그녀 앞에서 나는 예전 같은 불안감이 없었다. 내심 전례 없던 착실함과 행복감을 느꼈다.

이후 생활에서 아내는 항상 나를 관심해주었고 식사할 때 내 입맛에 맞춰 반찬을 했으며 몰수했던 내 급여카드와 통장도 돌려주어 나에게 보관하라고 했다. 집에서 나는 정말로 지위가 생겼고 가정의 따사로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생활은 행복했다.

그녀의 영향으로 내 성격도 많이 좋아졌다. 화목함은 우리 집의 어둠을 몰아냈다. 그 후로 나는 공개적으로 그녀가 파룬궁 수련하는 것을 지지했다.

분쇄성 골절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다

아내는 대법을 배우면서 모든 불치병이 사라졌고 19년간 약 한 알 먹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녀 신체가 강하게 변한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10여 미터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기사는 놀라서

얼굴이 흑색을 띠고 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떨리는 손으로 내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아내는 기사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안하면서 파룬파파를 배우기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며 기사를 보냈다. 그녀가 바닥의 자전거를 세워보니 자전거 앞바퀴가 S형으로 변했고 체인도 거의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아내는 왼쪽 종아리에 작은 뱀공기만한 검붉은 물질이 생긴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전거를 끌고 가 수리하려 했는데 주인은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집에서 5일간 머물렀고 그 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았다.

2014년 8월 16일 아내는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또 차한 대에 부딪혔고 2m 넘게 공중에서 곤두박질하고 길에 떨어졌다. 기사가 그녀를 일으켜 차 안에 앉게 했다. 내가 현장에 도착하니 그녀의 오른쪽 이마에 달걀만 한 검붉은 물질이 있었고 다른 상처는 없었는데 걸음을 아예 걸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고 사진을 찍어보니 오른쪽 허벅지가 분쇄성 골절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골절이 매우 엄중합니다. 반드시 수술 치료해서 부서진 작은 뼈조각을 꺼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골절된 곳은 대퇴골과 근접해 수술하지 않으면 대퇴골이 괴사할 수 있으며 그럼 평생 불구가 됩니다. 수술 후에 아주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는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10일 후에 수술하자고 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주사와 약을 아내 앞으로 가져왔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나는 병원에서 내가 아는 모든 원장, 전문가, 의사를 찾았고 그들은 그녀에게 수술하라고 설득했다. 수술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다.

아내를 빨리 수술하게 하려고 나는 또 모든 친구 친척을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사람이 많을 때 하루에 20여 명이 왔다. “수술하지 않으면 여생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아이와 가족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들은 일할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앞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녀는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반대로 친구와 친척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나의 80여 세 되는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서 나를 위안했다. “화내지 말아라. 내가 설득해볼게. 만약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러나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시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수술을 하라고 하니.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것을 못 보았니? 대법을 배우면 사부님의 보호가 있으니 빨리 집에 데려가거라. 며칠 휴식하면 좋아진단다!” 어머니는 완전히 아내 편을 들었다.

나는 이미 기진맥진했고 더는 방법이 없었는데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했다. “사부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 지난번에 사부님께서 당신을 보호해주셨지. 그런데 이번에 사부님이 전혀 보호해주지 않으셨어. 골절됐으니까.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누가 간호해? 남은 평생 이렇게 침대에 누워 가족을 힘들게 할 거야? 나와 아이를 생각해준 적 있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으로 전생에 빚진 것을 이번 생에 갚는 거예요. 이번에 사부님께서 만약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목숨이나 남았을까요? 골절이라도 또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의사도 내가 강철 뼈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전에 내 몸에 있던 모든 불치병은 의학으로 방법이 있었나요? 대법에 의해 철저히 사라진 것 아

닌가요? 대법에서 나는 반드시 예전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그 누구도 그녀의 대법을 단호히 믿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로지 대법 사부님께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빌 뿐이었다.

8월 26일 사진을 찍었고 27일 골과 주임이 이렇게 선포했다. “분쇄됐던 작은 뼈조각이 자연스럽게 전부 복구되어 아주 좋아요.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은 마치 황제가 내린 상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척 친구들도 자신도 모르게 박수하며 좋아했다. 병원에서 간호사 두 명도 이로 인해서 아내를 따라 파룬궁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 한 달이 지나 아내는 바닥을 디딜 수 있었고 두 달 후에는 물건을 잡고 걸을 수 있었다. 지금은 모두 정상이다.

대법은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이나 아내의 목숨을 구했다. 대법의 초범성과 신기함은 믿기 어렵다! 내 눈앞에 놓인 사실은 나를 완전히 탄복하게 했다. 이런 일을 만약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누가 나에게 말해줘도 나는 조금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장쩌민이 이렇게 잔혹하게 광적으로 탄압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법 수련을 견지하는지 나는 그 원인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

파룬따파는 정말로 불법(佛法)이다! 대법은 사람에게 무한한 아름다움과 광명을 가져다준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기를 바란다.

착실히 수련하며 안으로 찾는 오묘함을 깨닫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대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진정으로 법리를 깨닫고 법에 동화돼야만 느낄 수 있다. 대법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는 사람만이 보고 얻을 수 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자 어머니(수련생)가 말씀하셨다. “또 일이 생겼구나. 네 남동생이 전화해서 아내가 우리집 근처 병원에서 연수를 받게 돼 점심에 우리집에서 밥을 먹고 낮잠도 자야 한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우리집 열쇠도 하나 맞춰달라고 했어. 거절하고 싶는데 차마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분명 우리가 제고해야 할 요소가 있을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제고해야 할지 한번 깨달아 봐요.”

어머니는 이미 곧 80세가 되시는데 최근 몇 년간 다리에 나타난 병엽 가상을 계속 돌파하지 못해 걷는 것이 그리 편치 않으시다. 점심에 며느리를 위해 밥을 하라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얼마나 나쁜지, 올케가 얼마나 지나친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내 딸도 말을 거들며 외숙모가 얼마나 나쁜지 얘기했다. 나는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그들을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층차가 되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니 그럼 그냥 속인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안으로 찾아봐요. 우리가 제고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바로 이야기를 멈췄다.

나는 복(福)자를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법에서 제고해야 할지 계속 깨달아갔다.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떠올랐다. “이전에 우리 많은 수련생이 외부의 사람들과 일부 모순이 발생하거나, 사회의 사람들이나 어느 부서에서 우리를 공평치 못하게 대하면 우리는 언제나 모두 자신의 이 방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방면을 강조했다. 어떤 것은 매우 나빠, 그것이 마구 파괴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이 비록 나쁘고, 그것이 비록 마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어찌 우연히 나타났겠는가? 그의 나쁜 일면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나쁜 면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늘 말하는데, 두 사람이 모순으로 부딪치게 되면 당신들은 서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 두 사람 쌍방에게 모순이 발생하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설사 제삼자로서 이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제고 속에서 돌비맹진(突飛猛進)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싱가포르 법회 설법)

사부님의 법에 따라 나는 표면적인 그들의 행동을 보며 나 자신을 대조해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게다가 어머니에게 아주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드러낸 것은 자신을 위해 남이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는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자신이 하기 힘든 일을 시키니 이것이 바로 남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 자신과 대조해 보니 내게도 확실히 이런 행동이 있었다. 올해 내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자주 잡담을 했다. 내가 여러 번 타이르고 도리를 설명해 줘도 여전해서 수업 시간마다 계속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했다. 지금 보니 그들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그들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닐까? 내가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배려해 줘야 했던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깨닫고 나는 얼른 두 사람과 교류했고 두 사람도 바로 안으로 자신에게 이런 집착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 이 방면의 집착을 찾아냈고 모두 법에서 제고됐다. 이때 우리는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았다. 만약 남동생과 올케의 이런 ‘ 좋지 않은’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깊이 숨겨진 나쁜 집착심을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오히려 고마워해야 했다! 그 순간 마음이 단번에 확 트였고 우리는 갈등 속에서 제고됐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럼 내일 점심에는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며느리에게 밥을 해줘야겠구나.”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우주 만사 만물은 모두 질서 있게 배열돼 있어요. 예를 들어 식물은 모두 먼저 싹이 트고 그다음 가지와 잎이 자라며 다시 꽃이 피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잖아요.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인륜 도덕으로 봐도 장유유서이고 연장자가 우선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80세가 다 되셨는데 40대 중년인 며느리의 시중을 드신다면 그것이 사람의 도의에 어긋나고 자녀가 덕을 잃게 하는 것이니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일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이튿날 낮 12시가 넘었는데도 올케가 오지 않아 딸이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올케는 오늘 가지 않겠다며 자기가 밥을 챙겨왔고 사무실 동료들이 다 자리를 비워서 낮잠 잘 곳이 생겼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전화로 연락하겠다고 했고 올 때 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가 직접 해 먹겠다고 말했다.

사실 어젯밤 우리가 법에서 이 일을 이용해 제고된 후 나는 이미 올케의 문제가 직장에서도 다 해결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보아하니 우리가 안으로 찾고 대법에 동화되며 대법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 ‘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기’(정진요지-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만 한다면 대법이 자동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대법 속에서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험악한 환경 속에서 빛난 선량한 본성

글/ 중국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장기간 잔혹하게 ‘진선인(眞·善·忍)’ 신앙 단체를 박해하는 피바람 속에서, 수련을 견지한 모든 파룬궁 수련생은 각기 다른 정도의 험악함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반 대중, 심지어 박해 시스템에 피동적으로 휘말린 경찰조차 여전히 인성 속의 선량함과 정의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몰래 선의를 전하고 묵묵히 수련생들을 보호하며 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됐다.

아래 몇 가지는 내게 발생한 실제 경험으로, 험악한 환경 속 선량한 힘에 대한 증거다.

1) “대법제자는 모두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다”

2012년 무렵 나는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서로 왕래 없이 단지 서로 누군지 아는 정도였다.

그날 내가 그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자 그는 듣고 나서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널 다시 봐야겠네. 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제대로 얘기해 보자.”

자리를 옮긴 후 그는 뜻밖에도 중공의 각종 사악한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이 중공 악당을 깊이 증오했다. 그는 자기 직장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잡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좋은 사람은 다 감옥에 가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선악이 다 뒤바뀌었는데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겠어?” 그는 그동안 대화가 통하는 친구를 찾기 힘들었다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자주 연락하자!”

그 이후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됐다. 그는 나를 여러 번 도왔고 대법제자를 매우 인정했다. 누군가 대법이 안 좋다고 말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내가 아는 대법제자는 모두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야. 말해봐, 네 주변에 나쁜 짓 하는 사람 중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상대방은 즉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 “사람도 아주 좋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감시할 게 뭐 있소?”

2015년 무렵 우리집 맞은편에 한 기관의 사무실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 간부가 나의 오랜 친구였다. 나는 평소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는 대법에 아주 공감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했다. “공안국 사람들이 방금 날 찾아와서 우리 사무실을 빌려 너희 집을 감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 쪽에서 너희 집이 바로 보이니까. 난 핑계를 대고 동의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도 아주 좋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감시할 게 뭐 있소?’라고 말한 뒤 돌려보냈지.”

그는 내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며 말했다.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공안국에서 널 잡으려고 몇 번이나 버르고 있었는지 알아? 네가 평소 진실하고 남에게 선하게 대하며 평판이 좋아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나는 속으로 분명히 알았다. 그가 본 것은 내가 수련 후 환골탈태한 변화라는 것을.

나중에 내가 한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을 때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나 당신 알아요. 그동안 공안국에서 당신 잡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늘 흐지부지됐죠. 어쨌든 조심하세요.”

3) “사실 우리 당신네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 거 알아”

한번은 내 가족이 경찰인 내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빨리 내게 알리라고 했다. 수련생 한 명이 방금 잡혀갔고 경찰이 곧 가택수색을 하러 그녀의 집에 갈 테니 내가 빨리 그녀의 가족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했지만 어떤 수련생인지 몰랐다. 마침 한 수련생이 급히 달려와 누가 납치됐는지 안다고 해서 비로소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소식이 시기적절했던 덕분에 수련생 가족은 가장 먼저 대법 자료를 옮겼고 경찰이 가택수색을 했을 때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그 경찰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평소 너랑 연락을 잘 안 한 건 네 일에 지장을 줄까 봐 그랬어.” 그러자 그는 말했다. “경찰은 파룬궁 수련하는 친구 있으면 안 되나? 사실 우리 너희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 거 알아.”

4) 험악해 보이던 박해가 지나가다

또 한번은 현지에서 대법제자에 대한 집중적인 박해가 있을 때 정법위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서 나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내 거주지를 몰래 감시하며 이른바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마침 한 친구가 내 차를 빌려 쓰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너 조심해야겠다. 그놈들이 너랑 차를 한꺼번에 엮어 넣어서 단번에 널 끝장내려 하더라.” 알고 보니 그의 친구가 이번 작전에 참여했는데, 그가 내 차를 모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는 서둘러 내 친구에게 내게 알려주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차를 차고로 몰고 가 검사했고 과연 차에 위치 추적기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했다.

몇 달 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결국 위치 추적기를 철거했다. 이렇게 험악해 보이던 박해가 지나갔다.

맺음말

지난 몇 년간 이와 비슷한 일이 내게 여러 번 일어났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험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매번 나를 보호해 주었다. 나는 선량한 마음과 정의감을 가진 이런 친구들, 경찰들, 그리고 박해 속에서 나를 묵묵히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대법 사부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나를 환골탈태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자신을 착실히 수련한 약간의 깨달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지난달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그날 나는 어머니(수련생)에게 두부를 사서 바사 생선 요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예전에 우리는 늘 그렇게 이 요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반대하며 말했다. “어떻게 두부를 넣어서 요리할 수 있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안 돼, 안 돼.”

나는 조금 놀랐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조차 잊었을까? 우리는 줄곧 이렇게 해왔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나는 어찌 된 일인지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쨌든 내 어떤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든 어머니는 속인이 말하는 무슨 ‘견망증’, ‘노인성 치매’ 같은 것이 아니야, 어머니는 수련생이니까.’

본래는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이 요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보려 했으나 바빠서 잊어버렸다. 나중에 물어볼 기회가 생겼을 때 생각해보니 그 역시 집착이었고, 동시에 이 집착과 정보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번에 생선 요리를 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 집에 사람이 많아 그 생선을 요리하려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생선만 따로 요리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가 “그럼 두부를 사 와서 요리해야지!”라고

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지난번에 두부를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여태껏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내가 두부를 안 쓴다고 했고 내가 잘못 기억해서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몹시 놀랐다. 하지만 즉시 다투지 않고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아주 평온하게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내 쟁투심을 없애려 온 것임을 알았다. 평소에 어머니와 늘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 조금씩 논쟁하며 자신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늘 고치려 했지만 나 스스로도 만족스럽게 고치지 못했다. 이번에 나는 이 쟁투심을 극복하고 수련생의 이성으로 이 일을 대했다.

마음으로만 깨달을 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고, 나 자신이 수련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경험으로 나는 아래의 몇 가지 인식을 얻었다.

1. 무엇이 착실한 수련인지 체득하다

이번 일이 나를 놀라게 했기에 약간 경각심이 들었다. 우연한 일은 없다는 사부님 말씀이 곧장 떠올라 재빨리 내 마음을 안으로 찾았고, 내 쟁투심을 없애려는 것임을 즉시 의식했다. 그래서 아주 평온했고 생각나는 것이 모두 사부님의 법이었다. 이러자 나 스스로도 이 순간만큼은 수련인 같다고 느꼈고 작은 고비를 넘겼음을 체득할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위안’(아마 ‘위안’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을 느꼈는데, 바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수련하고 착실히 수련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2. 경각심

어머니 수련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번 모습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기에 당시 나는 비교적 경각심을 가졌고 고비를 비교적 잘 넘겼다. 그런데 이번 경험이 진정으로 나를 일깨운 것은, 평소 이렇게 큰 반전이 없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 자신의 습관과 관념을 고집 하던 술한 상황들이었다. 당시 매번 안으로 찾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이 끝나고 평온해진 뒤에야 내 문제를 찾았다. 그 순간의 상황에서 일으킨 사람의 생각이나 거침없이 내뱉은 말은 모두 상대방의 문제를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남의 마음을 겨냥한 것이 지 내 마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수련한 것이 아니었다.

일이 끝난 뒤에 내 문제를 찾으려면서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 쟁투심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사람 마음이 또 일어났다. 때로는 참으며 말하지 않았고 때로는 참지 못했는데, 나는 그때의 참음이 집착심을 내려놓은 참음이 아니라 억지로 참는 표면적인 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상적인 작은 일로 다투는 상황이 때때로 나타났다. 이제 나는 이런 일상적인 작은 일이 모두 내게 수련 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인식했다. 속인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모두 늘 그래왔던 생활 습관적인 일이기에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또 내가 법공부를 깊이 하지 못해 여전히 이런저런 내 습관을 품고 남과 다투었으며, 이런 습관과 관념이 수련생에게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아직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서 사실상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고 속인의 층차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것이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이 생겼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수련생임을 늘 경각해야 한다.

3. ‘수련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번에는 갈등 혹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이 수련인임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사부님의 법이 한 구절 한 구절 머릿속에 들어왔고,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으며,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집착을 겨냥한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 당시 가장 강렬하게 떠오른 것은 바로 쟁투심이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당연히 평온하고 온화하게 들으며 아주 태연해야 했다.

동시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법과 대조해 어떻게 잘할 것인가였다. 전체 과정에서 주의력을 전혀 어머니 쪽에 두지 않았고 이 일 자체에도 두지 않았으며, 오직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잘할 것인지만 생각했다. 즉 자신의 사상을 정화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착실한 수련임을 체득했고, 스스로 ‘나는 수련인이다’라는 이 일념을 냈을 때 내게 가져다준 일종의 에너지, 자신의 사상을 정화하는 에너지를 체득했으며, 수련이 가져다준 내면의 순수함을 체득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일종의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게 주신 격려임을 알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수련인의 신성함을 느꼈고, 진정한 수련인이 되어 착실히 수련해 나가고 꾸준히 견지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다.

층차가 제한적이니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가족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

글/ 중국 대법제자 텐전(田眞)

[명혜망] 저는 올해 59세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가족 중에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머니가 1997년에 가장 먼저 득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수련하신 후 평생 고된 노동으로 생긴 병들이 모두 나아, 부항을 뜨거나 침을 맞고 아이에게 등을 두드리라거나 다리를 주무르고 팔을 풀라고 하시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할 일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한숨을 쉬며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어머니는 8남매 중 맏이로 학교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까막눈이셨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시작하고 대법의 소중함을 아신 후에는, 불과 몇 달 만에 ‘전법륜(轉法輪)’ 전체를 유창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논어(論語)’도 아주 능숙하게 외우셨고 매일 연공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수련하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시내에 가구를 사러 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은 대형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트럭이 멈춰 선 뒤 어머니는 트럭 밑에서 기어 나오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거의 70세셨지만, 왼쪽 발뒤꿈치 피부가 조금 까졌을 뿐 다른 곳은 모두 멀쩡하셨습니다. 운전기사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됐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멀쩡합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

해서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니, 당신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어요. 어서 가보세요.” 어머니는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아버지와 함께 가구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저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대법을 수련해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덕분이지, 안 그랬으면 그날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다!” 아버지는 말씀하시면서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이 교통사고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사부님께서 대신해 목숨 빛을 갚아주셨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념정행하면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주신다.”

어느 날, 수련하는 둘째 고모가 수련하지 않는 둘째 고모부를 대신해 도로 청소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도로 난간을 닦고 계셨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와서 고모를 치어 10여 미터나 날려버렸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둘째 고모는 병원에서 이틀에서 사흘 밤낮을 혼수상태로 계셨습니다. 깨어난 후 고모는 퇴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시니 집에 가련다. 남의 돈을 더 쓰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자식들이 극구 말려 20여 일을 더 입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후, 둘째 고모는 시간을 아껴 법공부와 연공을 하셨고 아주 빨리 완쾌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몸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저의 고통도 아셨기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공을 하면 얼마나 좋니, 몸이 건강해지면 병원 가고 약 사는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약이 얼마나 쓰고 주사가 얼마나 아프니. 가부좌를 하면 얼

마나 편한지 몰라!”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듭 말씀하시니 저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하시는 넷째 고모 댁에 갔다가 사부님의 ‘시드니법회 설법’을 보게 됐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넷째 이모 댁에 갔는데, 마침 그 집 법공부 팀에서 ‘전법륜’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이모가 저에게 “같이 배우자!”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이모는 저를 속인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이 한마디가 법공부를 하고 싶었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법공부를 하면서 저는 몹시 감격했습니다. 다 배운 후 넷째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진작 말씀 해주지 않으셨어요? 에휴, 어머니 말씀을 일찍 듣지 않은 제 탓이죠.” 넷째 이모는 웃으시며 “그럼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잘 배우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법륜’을 가지고 우리집으로 돌아와 잠도 자지 않고 단숨에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대법이 제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기에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저에게도 사부님이 생겼고, 사부님의 법신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자는 것도 잊고 약 먹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연공 동작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고 결혼 후에는 더욱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철들 무렵부터 비염과 인후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코가 막혀 늘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맑은 물 같은 콧물이 툭툭 떨어졌고, 심할 때는 주르륵 흘러내려 일 년 사계절 내내 편한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2장 공법인 터우첸빠오룬(頭前抱輪)을 연공하고 있을 때 코가 ‘뽕’

하고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염이 싹 나은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시원하고 신기했습니다.

수련 동안 앓아온 인후염으로 심할 때는 물을 마시는 것조차 칼로 베이는 듯 아팠고 밥 먹기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목구멍에서 수시로 가래가 한 덩어리씩 올라왔는데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일 동안 가래를 뱉어내고 나니 인후염마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떡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올라와서, 한 번 신물이 넘어오면 자극이 너무 심해 눈물까지 쏙 뺐습니다. 복통, 식도 쓰림, 절박뇨, 요통 등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 많은 병이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병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병이 없으니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걸을 때는 바람을 타는 듯 했으며 아무리 높은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꿀을 먹은 것처럼 달콤했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며 즐겁게 집안일을 하는 제 모습에 남편과 아이들도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 후인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은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법이 훌륭한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사부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대법이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데 기적 같은 효과가 있음을 확신했기에, 굳은 결심을 안고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했습니다. 하지만 천안문에서 사복 경찰에게 납치돼 베이징 주재 웨이팡 사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부좌를 하면 다리가 대공포처럼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수련생 언니가 저에게도 가부좌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며 “저는 아직 가부좌를 잘 못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오른쪽 다리를 먼저 올린 뒤 왼쪽 다리를 잡았는데, ‘획’ 하고 다리가 꽤 높이 들리더니 아프거나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완벽한 자세로 엎혀졌습니다. 게다가 아주 편안하게 오랫동안 가부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가부좌가 제대로 안 되던 고비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수련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매우 빠르게 제고됐고 얻은 것도 무척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 어느 날, 저는 스쿠터를 타고 물건을 떼러 저장(浙江)성으로 갔습니다. 저장 시내 도로의 비동력차 전용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몰던 130 트럭이 갑자기 제 옆을 스치며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스쿠터와 함께 넘어졌고, 순식간에 머리를 트럭의 화물칸 뒷부분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멍했지만, 머리만 무척 아팠을 뿐 정신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청년은 이미 110에 경찰을 불렀고, 120 구급차도 바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청년의 어머니도 달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사부님께서 돌봐주시니 아무 문제 없다.’ 정수리를 만져보니 커다란 혹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저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자고 요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나는 멀쩡하니까 그쪽을 탓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그들은 한사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사부님께 도와주십사 청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수련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시니 위험하지 않아요. 며칠 쉬면 나을 테니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CT와 뇌파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해주자, 청년과 어머니는 제발 약이라도 받아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끝난 것만도 천만다행이라 여겼던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고 상대방에게 한푼도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몹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그녀는 또 저에게 교통경찰대에 가서 아들의 운전면허증을 찾아달라고 간청했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교통경찰대에 도착하자 사고 담당 경찰이 저에게 어떤 합의 조건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 경찰에게 진상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저 청년에게 앞으로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라고 주의만 주세요”라고 말한 뒤 사고 종결서에 서명했습니다.

교통경찰대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청년과 어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며 제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 감사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파룬따파에 감사하세요!” 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파룬궁 사부님, 감사합니다! 파룬궁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파룬궁 진상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

습니다), 찼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그때는 아직 공산당 조직 탈퇴를 권유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통증을 꼭 참아가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출근하며 틈틈이 법공부와 연공에 매진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27년 동안 수련해오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 저는 수련하시는 둘째 고모댁으로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둘째 고모는 올해 73세이신데도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시며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체격도 정정하고 거동도 날쌔셔서, 여전히 노동일을 하며 돈을 버십니다. 둘째 고모부는 천식을 앓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찼싼런하오’를 많이 외우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둘째 고모를 좀 보세요.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데도, 그 큰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셔서 지금도 노동일로 돈을 버시잖아요.” 둘째 고모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외우마, 외울게. 파룬궁이 정말 좋긴 좋구나, 정말 좋아.”

응보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떠한가?

글/ 영춘(嬴春)

[명혜망]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하늘의 이치는 예로부터 변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박해한 27년 동안, 박해에 가담한 악도들은 연이어 각종 형태의 응보를 당했다. 이는 그들에게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듯 제때 손을 떼라고 일깨워주거나, 혹은 자신의 악행이 낳은 쓴맛을 먼저 맛보게 해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신론과 중공의 거짓말에 세뇌된 탓에, 많은 악행자들은 자신과 타인이 응보를 당하는 사실을 직면하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결국 더 많은 응보를 자초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산둥성 린이(臨沂)시 전(前) 개발구 치안대대장 왕원포(王文坡)가 바로 그 생생한 사례다.

왕원포는 당시 50세가량으로, 원적은 린이시 허둥(河東)구 타이핑(太平) 주민센터 동왕좡(東王莊)촌이다. 부대에서 제대하고 지방으로 온 후, 그는 연줄을 통해 공안 계통에 들어가 말단 경찰이 됐다. 주변의 많은 식견 있는 사람들은 그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중공을 숭배하며 권세를 맹신해 가치관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을 보았다.

1999년 7월, 중공은 갑자기 파룬궁 박해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왕원포는 허둥구 주취(九曲)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출

세육에 눈이 먼 그는 정치적 풍향을 읽고 스스로 나서서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00년, 현지의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자발적으로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을 위해 청원했다. 왕원포 등은 정치적 목적과 승진, 돈 벌이의 동기로 폭력적으로 청원자를 가로채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그들을 구치소에 납치해 감금했다. 그리고 종합치안판공실로 압송해 4개월 동안이나 강제로 세뇌하고 고문했으며, 나중에 그 중 많은 사람이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하기도 했다.

왕원포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손만 들면 때렸다. 당시 수십 명의 남녀 수련자가 함께 감금돼 강제 세뇌, 전향, 고문을 당했다. 왕원포는 자주 술을 마신 후 달려가 수련자들을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는데, 입에는 온통 더러운 욕설이 가득했다. 한번은 그가 한 여성 파룬궁수련자에게 심하게 손찌검을 해 그녀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눈은 앞을 볼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게 됐다.

왕원포는 또 큰길에서 총을 들고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협한 적도 있다. “너 계속 연공할 거야, 안 할 거야?! 또 연공하면 썩 죽이겠어!”라며 매우 오만방자했다.

왕원포의 각종 폭력과 위법 행위는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 그리고 현지 시민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파룬궁을 적극적으로 박해한 덕에 뜻대로 중공의 발탁을 받아 개발구 치안대대장이 됐다. 이때부터 그는 더욱 악랄하게 박해에 매달렸고, 빠르게 타락하며 최악의 심연으로 직행했다.

사실 이 기간 하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왕원포에게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제때 멈출 기회가 많았는데, 박해를 주도했던 상급자, 동료, 현지 박해자들이 줄줄이 응보를 당했기 때문이다.

- 린이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배후 검은 손 주쑹순(朱忠順·60), 자오펬이어(趙佩娥·53)가 2008년 급병으로 사망했다.

- 린이 시위 부서기이자 610 책임자인 쑤페이쥔(孫培群)의 큰 아들이 갑자기 병사해, 백발의 부모가 검은 머리의 자식을 먼저 보냈다.

- 전 허둥구 구위 서기 경원롄(耿文練)이 교통사고로 아내, 딸과 함께 목숨을 잃어, 일가족 4명 중 대학에 다니는 아들만 남았다.

- 허둥구 악질 경찰 평빙레이(豐丙雷)가 조직폭력배에게 20여 차례나 찔려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 린이시 공안국 란산(蘭山) 분국 형사대대 전 대장 리환셴(李傳賢)은 파룬궁수련자 심문을 담당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와 아내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첫날은 어머니의 추도식을 하고 다음 날은 아내의 추도식을 하는 등, 선달에 하룻밤 새 두 식구가 죽어 온 도시를 경악케 했으며,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응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 린이시 의료 보건 계통은 박해에 가장 앞장섰고 응보도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 위생국장 마쯔리(馬自立)는 부패에 연루돼 1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들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쯔리는 감옥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

부국장 쑨청젠(孫承建) 동생의 일가족 3명이 흥기에 찢려 죽었다. 국장급 간부 루충샹(盧從祥)은 천벌을 받아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쳤고 그의 아들은 사고로 사망했다. 종양병원 원장 거라이펑(葛來增)의 아들은 병사했다.

· 란산구 사부(沙埠) 중심초등학교 교사 주원잉(朱文營)은 파룬궁을 비방하는 첩관 게시물, 전시판 등을 만들어 수백 명의 초등학생에게 서명을 강요했는데, 그의 12살 된 외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인과가 뚜렷한 사람과 사건을 마주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깊은 밤 고요할 때 다시 생각해 보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량한 본성이 묻히고 우둔하며 귀신에 홀린 사람은 마비돼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왕원포가 바로 귀신에 홀린 자의 예다. 다른 사람들의 응보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갔지만, 왕원포는 선입견에 빠져 차라리 공산당의 세뇌를 믿을지언정 선악의 인과를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응보를 ‘우연’으로 치부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응보가 나타나 아내가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 불화가 극에 달했음에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우연’이라고 단정했다.

파룬궁수련자의 진상 편지를 보고도 그는 못 본 체했고, 선을 권하러 온 사람을 만나면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위협했다.

결국 왕원포의 굳어진 미몽은 그 자신에게 더욱 참혹한 3대 응보를 불러왔다.

1. 악행이 가족에게 미치다: 18살 외아들이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고, 그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2. 무너진 관운: 부하 직원이 총을 들어 다른 경찰을 쏘 죽인 사건으로 그가 처분을 받으면서 상하 관계가 악화됐고, 관운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3. 비참한 최후: 2015년 3월 23일, 왕원포는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최악 된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지옥의 형벌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왕원포의 삶은 수많은 중공 당원들의 인생 축소판이다. 그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공은 그들을 가장 악독한 악당으로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믿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굴며 당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게 했으며, 특히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적극적으로 해치게 했다.

중공의 최악사를 통틀어 볼 때, 1999년 7월 중공이 발동한 파룬궁을 적으로 삼은 이 정치 운동은 중공이 역사상 일으킨 모든 인민 박해 운동 중 최악이 아닌가? 이 정치적 박해는 당내의 정치 권력 투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진선인’으로 자신의 심신 상태를 향상한 수천만 명의 중국 국민을 당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지로 몰아넣으며 왜재를 불렀다. 동시에 대대적인 연좌제를 실시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소멸 정책을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의 가족, 그들이 일하는 기관, 그들이 속한 주민센터에 가해, 온 중국의 사회 도덕이 철저히 마지노선을 잃게 만들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내가 말하건대, “선악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응보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으니, 좋은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하늘이 반드시 보상하고, 나쁜 사람이 흉포하게 굴면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

현세의 응보에 관해서는 모두가 아는 예가 많지만, 많은 사람이 그저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이 인과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크게는 중공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부터, 작게는 린이의 왕원포가 자살한 것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은 바로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이 천리(하늘이 정한 규칙)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중국인 중에는 꽃과 나무를 심기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자신이 심은 것이 전갈(불인불의, 천리인륜에 어긋남을 상징)이라면, 어떻게 ‘복숭아(壽桃: 평안과 복록을 상징)’ 같은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는가?

권세에 대한 미련, 당에 대한 맹신, 하늘에 대한 부정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자 일방적인 바람일 뿐, 천도의 운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천도의 운행은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악 인과율’은 바로 천도의 운행 속에서 사람에게 정해놓은 법칙으로, 바꿔 말하면 하늘이 사람에게 제정한 법률이다.

공산당은 ‘사람이 반드시 하늘을 이긴다’고 고취하지만, 공산당 자신조차 이를 믿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찾아 점을 보고 풍수를 보며 부처에게 절하고 신선에게 빈다. 춘하추동 일 년 사계절, 해가 뜨고 지며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여태껏 당의 지휘를 들은

적이 없다.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고취하지만, 수천만 명의 당원 중 누가 진짜 ‘공산주의’를 믿는가? 없다. 그들이 믿는 것은 돈, 권력, 그리고 쾌락뿐이며, 하늘이 그들에게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낙마시켜 살고 싶지 않게 만들 때까지 그럴 뿐이다.

‘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것은 하늘이 악행자에게 자비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며’, ‘화와 복은 정해진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는 것이다. 박해에 가담한 더 많은 류징(劉京), 저우융캉, 왕원포들에게 일깨워 준다. 즉시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듯 손을 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결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 록, 수’를 정말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그저 헛된 망상일 뿐이며 세상물정 모르는 짓이다.

곽자의의 고상한 품성 “충신은 충애에 기대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글/ 소가(蕭歌)

[명혜망] 중화 전통문화에서는 겸손을 지극한 덕(至德)으로 여겼다. ‘시경(詩經)’에는 “교만하지 않고 사귀면 온갖 복이 찾아온다”라고 쓰여 있다.

노자(老子)는 일찍이 “공(功)을 이루어도 머물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이 지극히 크면서도 바라는 바가 없고 사심이 섞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초연한 경지다. 역사 속에는 확실히 덕을 근본으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해 공을 세우고도 자만하지 않는 고상한 수양을 보여준 현자가 있었다.

‘신당서(新唐書)·곽자의전(郭子儀傳)’에 따르면, 곽자의(697~781)는 당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명장으로 평생 안사의 난(安史之亂) 등 많은 난을 평정했다. 그는 당나라 현종(玄宗), 숙종(肅宗), 대종(代宗), 덕종(德宗) 등 4대 황제를 모시며 변방을 지키고 나라를 호위하며 전쟁터를 누빈 국가의 기둥이었다. 보응(寶應) 원년(762년) 그는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졌고, 역사에서는 곽령공(郭令公)이라 불렸다. ‘부귀와 장수를 누리다’라는 고사가 바로 곽자의에게서 나왔다.

당나라 대력(大曆) 8년(773년), 곽자의는 영주(靈州, 현재 Ningxia 영무현)에서 토번(吐蕃) 진영을 대파했다. 조정의 환관 어조은

(魚朝恩)은 평소 곽자익의 뜻이 맞지 않았는데, 곽자익이 밖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사람을 보내 곽자익의 아버지 묘를 도굴했다. 비록 도굴범을 붙잡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가슴을 졸였는데, 어쨌든 곽자익이 병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만약 소란을 피우려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고 조야가 모두 변고가 생길까 두려워했다.

당 대종 이에(李豫)가 곽자익과 한담을 나누던 중 도굴 사건을 언급하며 곽자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았다. 곽자익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이 오랫동안 군대를 통솔하면서 병사들이 남의 묘를 훼손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의 선친 묘를 파헤친 것은 하늘의 형벌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아버지 묘가 도굴당했을 때 곽자익의 첫 번째 반응은 효자의 비통함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남의 잘못을 추궁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신을 반성하며 이 일에 자신이 군대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해 초래된 인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조정의 긴장된 분위기는 일순간에 사라졌다. 어조은은 곧바로 그를 초청해 장경사(章敬寺)를 함께 유람하며 화해를 표했다.

어떤 이가 곽자익에게 전갈을 보내 어조은의 초청은 그를 암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자익의 문하의 장병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장 호위대를 대동하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곽자익은 의연히 이런 헛소문을 듣지 않기로 하고 필요한 가동(家童) 몇 명만 데리고 아주 편안하게 모임에 갔다. 이

렇게 그가 장경사에 도착하자, 어조은은 곽자의가 데려온 몇몇 가동들의 경계하는 표정을 보고 매우 의아해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곽자의는 바깥에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어조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곽자의의 이처럼 담담한 설명에 어조은은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공처럼 덕이 높은 어른이 아니시라면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곽자의는 아버지 묘가 도굴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자신의 공이 높고 명망이 두텁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그는 늘 대국을 중시하고 치욕을 참으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 분쟁을 해소했다. 당나라 사학자 배기(裴垪, 765~811)는 그를 평가했다. “권세가 천하를 기울일 만해도 조정에서 시기하지 않았고, 공로가 한 시대를 덮을 만해도 군주가 의심하지 않았다.” “신하의 도리에 결함이 없었다.”

청나라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은 그를 평가했다. “충신은 총애에 기대어 임금을 섬기지 않고, 효자는 사랑을 믿고 아버지를 사모하지 않는다.”



▲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뮌헨 등 도시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반(反)박해 27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 가운데, 13명의 독일 각급 정계인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서한을 보내 성원했다. 정계인사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라며 중국공산당(중공)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중공은 평화로운 명상 운동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에 주목하며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필요한 한 항상 여러분 곁에 서 있겠다”라고 밝혔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479만 3028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